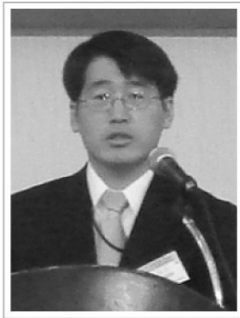


## 아시아와 유럽 간 협력의 견인차가 되길

김대기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장



“

세미나를 통해  
21세기 원자력의 비전을 공유하고  
원자력에 대한 대중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공동 과제가  
많이 도출되어 아시아와 유럽 간  
협력의 견인차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존경하는 필립 띠에보 주한 프랑스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불 양국의 원  
자력 전문가 여러분!

오늘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프랑스원자력  
산업회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5회 한·  
불 원자력산업 연차세미나」가 금년 서울에서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오늘의 세미나를 준비하는 데 많은 노  
력을 기울이신 양국 관계자 여러분께 큰 감사  
를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원자력은 원자력 발전 분야  
뿐만 아니라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  
용한 보건 의료 분야, 종자 개량 및 식품 보존  
등의 농업 분야, 비파괴검사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무한한 활용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  
다.

이제 원자력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없어  
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술이며 지속 성장을 위

한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시민 인식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이 안전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인류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이며 핵확산 문제가 없는 원자력 시스템을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고갈되어 가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원자력 기술을 개척하여 인류 복지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일찍이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원자력을 포함한 미래 에너지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하고 핵확산성이 없는 파이로(Pyro) 핵연료 등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되어 나가도록 원자력과 환경, 원자력과 의학, 원자력과 산업을 융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긴밀한 원자력 협력은 1981년 한·불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한 이래 25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양국은 총 18차에 걸친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원자력 연구 개발, 안전성 확보 및 국민 이해 증진, 핵연료 개발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한국의 울진 원자력발전소 1·2호기의 공급국으로서 또한 한국의 주요한 원자력 협력 파트너입니다.

양국은 서로의 강점 기술을 잘 결합하면 양국 국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세계 원자력계의 선도적인 국가인 한·불 양국이 손잡고 나아간다면 이러한 목표들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21세기 원자력의 비전을 공유하고 원자력에 대한 대중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공동 과제가 많이 도출되어 아시아와 유럽 간 협력의 견인차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발표 내용이 차기 「한·불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에 그 결과가 보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프랑스원자력산업회의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한·불 양국간의 우정과 협력이 더욱 증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